

# 축산물 유통예고제의 실시와 그 성과

김 용 진  
(축협조사부 관측과)

## 1. 머리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축이 사양되었는가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래전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이를 구하는 일”로서 가축이 사양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다남은 찌꺼기를 버리기 아까워서 시작한 양축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농경문화가 정착하면서부터 이미 가축이 사육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의 수도 많았을 리가 없다.

가축에 대한 통계가 최초로 확인된 1944년을 보면 소가 89만두, 돼지가 34만두, 닭이래야 200만수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도 해방이후 동란에 이르는 혼란기에 반이상이나 줄어들었다가 1960년 현재로 소가 100만두, 돼지가 140만두, 닭이 1,200만수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그 수치를 들지않아도 명확할 정도로 축산업이 국민의 식생활면에서나 농가의 소득면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축산업의 급격한 성장의이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본래적으로 가축사양을 위한 사료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사료의 원

료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농가의 양축 소득면에서나 물가 안정면에서 적지않은 피해 요인이 되어온다. 여기에다 축산물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을 턱없이 많이 함으로써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와같은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축협에서는 1980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유통예고제를 “축산관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제 축산관측 실시 5년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이후 보다 발전적 시행을 위한 촉진제가 되고자 한다.

## 2. 유통예고제의 실시 배경과 경위

### 가. 실시 배경

축산물에 대한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 두가지 면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다. 앞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1979년에 양돈에서 빚어진 극심했던 불황을 계기로 그와 같은 불황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까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돼지의 사육과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동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의 경기변동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미리 양돈농가에 널리 알려 불황이 온다는 것을 경고했다라면 그와 같은 불황은 예방할 수 있어 농가소득도 보장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싼 외화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둘째는 이론적인 타당성이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절감되더라도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면 그 효과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육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는 한우나 젓소같은 초식성 대가축과 돼지나 닭같은 중소가축은 그 생리적인 특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대가축은 성장기간이 장기성인데다가 번식력 또한 겨우 한마리의 새끼를 낳는 등 약한데 반하여 중소가축은 성장기간도 단기이고 증식력도 극히 강하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가축은 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어서 두수증식이 요망되는데 반하여 중소가축은 과잉사육과 과소사육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잉·과소사육으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로 하여금 아예 새끼부터 알맞은 두수만 키우도록 유도해야겠다는 것이다. (표-1참조)

이렇게 하려면 양축농가가 어느 정도가 알맞은 두수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사육두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양축가에게 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판단 지표가 바로 관측정보인 것이다.

### 나. 추진 경위

이상과 같은 현실적 이론적 필요성에 따라 1962년부터 우리나라 농업에 이미 도입된 바 있는 관측제도를 축산에 도입하기로 하고 1979년 하반기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2/4분기 관측까지는 발표를 못한 채 내부자료로 활용하다가, 그 타당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1980년 3/4분기 관측부터 관측보를 매회 3만부씩 발행하여 배포하기에 이르렀고 신문, 축산잡지, 방송매체 등에 의한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되었다.

그후 1982년 3/4분기 관측부터는 관측보를 6만부로 증간하였고, 이듬해는 관측협의회도 각계 전문가 11명에서 33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한 바 있다. 또한 동년 4/4분기 관측부터는 관측보를 8만부로 증간 하였다가 각계 축산인의 절대적인 수요에 못이겨 금년 3/4분기 관측부터는 대폭 20만부로 증간하여 읍면사무소까지 대대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정기관측이 실시되지 않은 중간 공백기라도 필요에 따라 예고전단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 3. 관측방법과 기대효과

### 가. 관측방법

그렇다면 것처럼 중요한 축산관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먼 앞날을 예상할 때 자기가 겪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 1. 수급 안정수단

단 계	대 상	수 단	방 법	추 진 주 체
1 단 계	새 끼 돼 지	사 육 조 절	관측홍보	양 축 농 가
2 단 계	큰 돼 지	출 하 조 절	출하억제 및 독려	양 축 가 단 체
3 단 계	고 기	비 축·방 출	수 매	정부(공공기관)



지로 축산관측에서도 우선 과거의 축산경기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설명되는 사항은 계량적 분석 방법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이나 정책사항같은 것은 별도로 연관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처해있을 관련사항들을 여기에 접합시키므로써 앞으로의 경기변동 상황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양돈관측을 예로 든다면 1 단계로 돼지 사육두수 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돼지가격이나 양돈 배합사료 가격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와 대체소비 관계에 있는 쇠고기, 닭고기, 그리고 생산가격까지도 수집하고 컴퓨터로 분석하여 앞으로 돼지 두수가 얼마만큼 증감할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예측치를 찾아낸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계화할 수 없는 질병이나 정책요인 또는 사육농가의 의향 등이 반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이것이 보완되도록 양축농가들로부터 사육의 향조사를 하고 경험적 판단을 가미하여 보다 현실적인 “안”으로 조정된다.

다음 세번째 단계에서는 축산전문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전문가, 축산관계당국 대표, 양축가 대표, 사료공장 대표, 통계기관 대표, 양축가 단체 대표 등 33명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된 “축산관측 협의회”에 “관측안”을 상정하여 현실적이고도 전문적인,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관측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하여 “축산관측보”라는 별도 홍보용 자료를 발행(20만부)하게되며, 읍면사무소, 축협, 단협, 지도소 등을 통하여 배포하는 외에 신문, 축산잡지, 라디오, T·V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별도 양축가 좌담회도 갖게 된다.

#### 나. 기대되는 효과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년간, 분기별로 4회(2, 5, 8, 11월)에 걸쳐 소 및 쇠고기, 돼지 및 돼지고기, 그리고 닭 및 닭고기와 계란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후의 사육두수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렇게 관측결과가 홍보되면 이를 접하게 된 수많은 양축농가들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와 같이 각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축의 적정사육이 실현되고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져 양축농가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된다는 것이 축산관측에서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먼저 닭을 예로 들면 사육수수가 너무 많아 얼마 후에는 가격이 크게 폭락할 전망이다라고 관측 결과가 홍보됐을 때는 양축가들은 반사적으로 사육수수를 감소시키고 큰닭은 조기 출하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던 불황은 예방되고 가격은 안정되게 되

며, 반대로 사육수수가 너무 적어 얼마 후에는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의 관측결과가 홍보됐을 때는 양축가들은 사육수수를 늘리고 출하를 지연하는 등으로 가격파동을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관측은 비가 온다는 데도 비구름을 걷어낼 수 없어 우산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일기예보”와는 달라서 일단 관측결과가 홍보되면 거기에 따라 수십만 양축농가가 곧바로 자율적인 조정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관측 당시의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관측은 틀려야 맞는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기예보와 다른 특성이 라고 지적할 수 있다.

#### 4. 그동안의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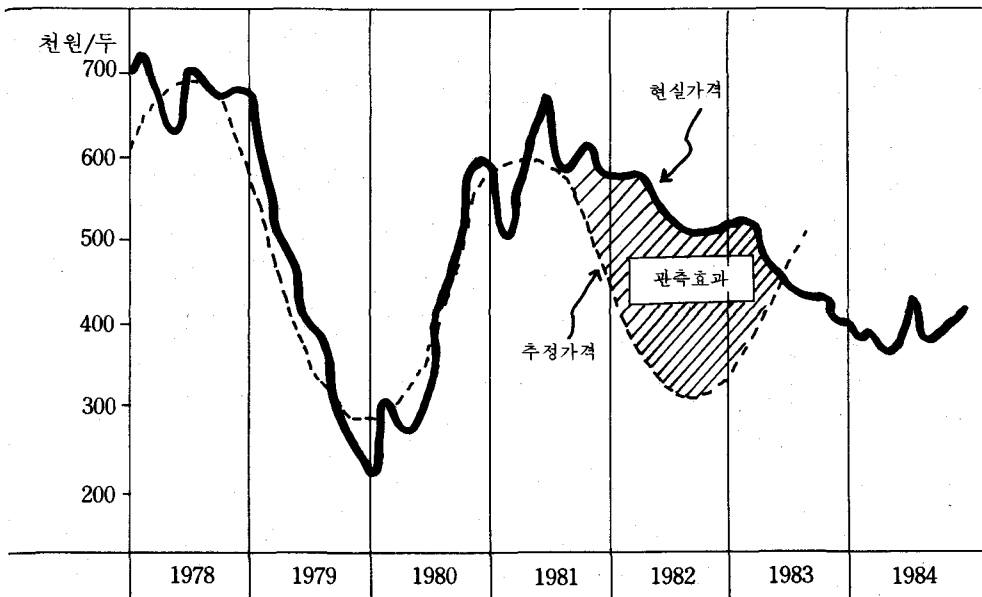
축산물 유통예고제가 축산관측을 내용으로 실시된지 4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측이 갖는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 성과를 일의적으로, 그리고 계수적으로 계측하기는 불가능하며, 설령 계측이 가능하다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과와 개별 양축농가 소득 차원에서 보는 성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안정을 어느 정도 실현하여 왔는가를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축산물 유통예고제의 주대상 가축이 되고 있는 돼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돼지는 본질적으로 생장기간이 단기성인데가 증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과잉, 과소의 반복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배합사료의 원료곡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서 소위 콘 호그 사이클(Corn Hog Cycle)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의 농가 판매 실질 가격을 분석해 보면 평균 33개월마다 주기적인 가격 변동상황

표 2. 돼지 농가 판매 실질가격 주기변동과 관측 효과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 변동 현상을 최근 수년간에 적용하여 보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79년 12월을 중심으로 경험한 극심했던 불황 이후 81년 3월을 중심으로 맞이한 호황세는 82년 9월을 중심으로 다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가 작년 8월 경에는 다시 호황세로 반복되는 것으로 과거 20여년간의 주기변동세를 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79년의 불황을 겪고나서 양돈업계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시작한 축산관측의 홍보효과로 82년 9월에 예상되던 불황을 막아 81년의 호황세를 작년 여름철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다. (표-2 참조)

이와같은 호황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에도 양돈농가는 장기간의 호황을 개별 경제면에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한 나머지 관측결과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불황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관측결과에 대한 역이용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효과와 개별경제 효과간의 마찰에서 빚어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돌려버릴 수만은 없을 것 같다.

## 5. 강화방안

농가가 양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표로 국가 전체적인 상황과 전망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분석한 축산관측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바탕 위에서 축산관측이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측을 수행하는 주체측과 관측을 활용하는 측의 목표를 향한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정도 높은 관측안을 만드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높은 각종 통계

와 예측하는 기법의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양성이 선행되어야겠다. 또한 경기의 예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질병발생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 방법이 강구돼야겠다. 이를 위해서 축협중앙회에서는 이미 개별모니터 4,100명에 이어 지역모니터 80명을 배치, 활용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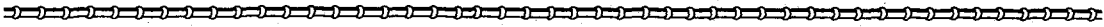
둘째 관측결과를 활용하는 측에서는 축산관측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각자의 양축활동을 맞추어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몇몇 개인이나 몇사람만의 특정집단을 위해서 실시하는 축산관측이 아니라 양축가 등 모든 축산인을 위하고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촉구해 나가야겠다.

셋째로는 이상 두가지 강화대책을 근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양축가의 협동적 조직력을 강화해야겠다.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야말로 공공적 사업의 효율증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 6. 맺는말

금년 들어 양돈을 비롯하여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 축산업은 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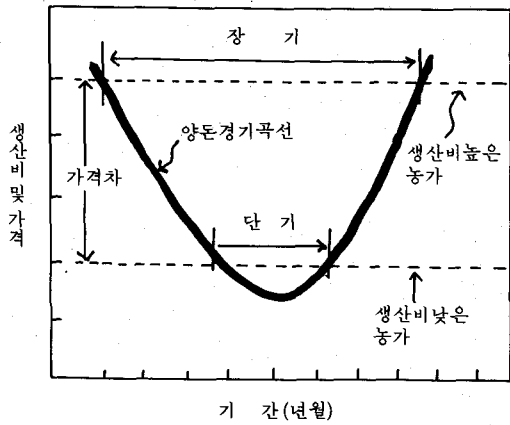
일시적인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으로서 가축과 함께 땀흘리지 않고는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믿어진다. 모름지기 모든 양축가는 일시적인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사육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우선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겠다.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생산비가 평균보다 낮은 농가와 월등하게 높은 농가가 받는 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생산비가 낮은 농가는 불황의 영향을 남보다 늦게 그리고 심각하지 않게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에는 반대로 남보다 빨리 영향을 받게 되어 불황의 심각성을 모르게 된다. (표3 참조)

다음으로는 품종개량에 꾸준히 노력하여 남보다 좋은 고기를 생산해야겠다. 호·불황에 관계없이 식육 도매시장에서의 상등육과 하등육의 가격차는 심한 경우 하등육 가격의 배 이상으로까지 클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을 축산인 스스로가 협동

표 3. 불황시 생산비 높은 농가와 낮은 농가의 영향도



적 노력으로 지켜 나가야지 정부나 소비자가 지켜 주는 것이 아니다. 축산업을 축산인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과음하면 암에 걸린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또 마음놓고 먹어온 땅콩도 어느 지역산인가에 따라 암의 발생요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일부 발암물질이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데 착안, 자연상태에서 먹고 마실수 있는 음식물중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데, 최근 제너럴 모터스(GM) 암연구재단이 주최한 심포지움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발암 인자가 적어도 인공물에 포함된 발암물질만큼이나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자연은 발암물질을 만드는 반면 암을 방지하는 물질도 스스로 만드는것 같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커피는 암과 무관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